

EU의 러시아 경제 의존성 위험 회피 전략

- 중앙아시아와 연결성 전략을 중심으로 -

변 헌 섭* · 윤 영 민**

목 차

- 서 론
- EU의 러시아 경제 의존성 및 대중앙아시아 전략 개관
- EU의 대중앙아시아 연결성 의제의 주요 분야별 성과와 한계
- 결 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성 위험 회피 전략으로서 유럽 연합(EU)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고, 특히 연결성(connectivity) 의제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최근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EU와 중앙아시아 간의 경제·외교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EU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적 물류 및 에너지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EU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물류 및 교통망 연결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EU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유라시아 지역 내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와 도전 과제를 지적한다. 향후 EU는 더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계명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조교수(제1저자)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교신저자)

I. 서론

최근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외교 지형이 크게 변화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대응 정책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였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보복 제재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생산, 운송, 공급망을 심각하게 붕괴시켰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방의 제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EU와 중앙아시아 간의 양자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부각되었다.

EU와 중앙아시아의 모든 논의에서 ‘연결성’(Connectivity)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 개선이 아니라 무역, 에너지, 디지털화, 제도적 협력, 인적 교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개념을 포함한다. EU와 중앙아시아 간 연결성은 단순한 교통·물류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및 경제적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는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대체 물류 및 에너지 경로 확보가 시급하고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물류망 개발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는 EU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 및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 글로벌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

EU와 중앙아시아 간의 지속 가능한 연결성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이 적절한 협력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및 실행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카스피해 횡단 회랑(Trans-Caspian Corridor) 개발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운송망 구축 및 발전 촉진, 기존 에너지 연결망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항공 연결성 발전 가능성 모색 등이다.¹⁾ 2022년 11월 18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EU-중앙아시아 연결성 회의’에서 양측은 모든 연결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1) “Joint Roadmap for Deepening Ties between the EU and Central Asia,”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4587-2023-INIT/en/pdf> (검색일: 2025.01.26.)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및 연결성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EU-러시아 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 알마티에서 열린 제2차 EU-중양아시아 경제 포럼에서는 EU가 중양아시아에서의 활동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EU는 교통·물류 연결성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중양아시아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 말 개최된 ‘EU-중양아시아 운송 연결성을 위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자 포럼’은 EU가 중양아시아의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가장 중요한 최선의 노력 중 하나이다. 이 포럼은 EU, 중양아시아, 코카서스 국가, 튀르키예 및 기타 국제 파트너들의 고위급 지도자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및 협력 전망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

EU는 중양아시아와의 에너지 부문 협력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이는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의 대안을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수입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EU가 중양아시아와 협력해 온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속해서 강조되어 왔다. 1995년 발표된 ‘EU와 중양아시아 신생독립국 간의 관계’ 문서에서부터 최근 발표된 최신 전략에 이르기까지 EU의 중양아시아 접근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²⁾

전통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개발과 최근의 핵심광물의 중요성 대두는 중양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생산국이자 에너지 운송 거점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와 중양아시아는 글로벌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공통의 관심이 있다. 특히, 수출 경로, 수요 및 공급 구조,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데 상호 이익이 있다. EU는 이러한 자원의 개발 및 운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EU와 중양아시아 간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으로서 연결성 의제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분야인 핵심광물을 포함한 에너지와 운송 분야 협력의

2) “Central Asia emerging from the shadows,” <https://www.clingendael.org/sites/default/files/2025-01/central-asia-emerging-from-the-shadows.pdf> (검색일: 2025.01.26.)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관계의 잠재력을 분석한다. 그동안 EU와 중앙아시아 간 연결성 의제와 관련된 높은 잠재력과 협력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낙관적 논의가 많았으나, 실제 프로젝트 및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거의 없었다. EU와 중앙아시아 간 협력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 현황뿐만 아니라 주요 협력 분야별 제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즉, 중앙아시아 국가는 EU에 정말로 석유 및 천연가스, 핵심광물의 대체 공급지와 러시아 우회 운송 루트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기존의 국내 논문들은 주로 중앙아시아의 입장에서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거나³⁾ 중국과 협력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으며, EU 입장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거나 외교적 측면이 강조된 연구⁴⁾가 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EU 입장에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핵심광물, 운송회랑 분야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고 협력을 위한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양측 협력 발전의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II. EU의 러시아 경제 의존성 및 대중중앙아시아 전략 개관

1. EU의 러시아 경제 의존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EU와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물류 및 운송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다.

3) 박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 상황과 중앙아시아의 보완적 요인,” 『동유럽발칸연구』, 제48권, 제1호 (2024), pp. 255-281.; 변현섭, “핵심광물의 공급망 재편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 개발 정책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40권, 제3호 (2024), pp. 167-197.; 조영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의 대외 에너지 협력에 미친 영향,” 『슬라브학보』, 제39권, 제2호 (2024), pp. 61-92.

4) 윤성욱, “유럽연합 대외정책의 제약과 한계: 대 중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1호 (2015), pp. 87-109.; 이지은, “카자흐스탄의 對 EU 정책: 전방위외교와 추진 동력,” 『슬라브研究』, 제39권, 제3호 (2023), pp. 1-30.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전까지 EU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다. 2021년 러시아는 EU의 5대 무역 상대국으로 EU 전체 상품 교역량의 5.8%를 차지했으며, 총 양자 간 교역액은 2,575억 유로(2,702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는 두드러져 러시아는 EU 천연가스 수요의 약 40%와 원유 공급의 25%를 담당했다.⁵⁾ 이러한 관계는 EU가 러시아의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러시아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로 특징지어졌다. 또한,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평화 시에는 경제적으로 유익했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하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보이면서 심각한 지정학적 취약점으로 작용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EU의 주요 희토류(REE)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여전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에 EU 국가들이 총 10,700톤(7,230만 유로 상당)의 희토류를 수입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990만 유로)을 러시아에서 수입했고, 중국의 점유율은 43%였다. 2021년에는 수입량이 16,900톤(1억 650만 유로 상당)으로 증가했고 러시아의 점유율은 27.2%로 감소했고 중국의 점유율도 35.5%로 낮아졌다. 2022년에 EU의 희토류 수입은 총 18,400톤(1억 4,570만 유로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는 24.5%로 감소했고 중국의 점유율은 40.2%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EU가 총 12,900톤(1억 150만 유로 상당)의 희토류를 확보했으며, 이 중 중국의 점유율은 46.5%로 증가했으나, 러시아 역시 28.7%로 상승했다.⁶⁾ 또한, 러시아는 2023년 기준 EU REE+(희토류+스칸듐 및 이트륨) 수입의 22%를 차지한다.⁷⁾

물류 및 운송 네트워크는 러시아와 EU 간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맥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EU 천연가스 수요의 약 40%를 공급했는데, 2021년에는 1,570억 입방미터(m³)의 가스가 주로 노드스트림1, 야말-유럽 파이프라인, 우크라이나 경유 파이프라인, 투르크스트림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5) “EU-Russia trade plummets to historic low,” <https://www.aa.com.tr/en/europe/eu-russia-trade-plummets-to-historic-low/3406224> (검색일: 2025.5.17.)

6) “The EU has shifted its focus from Russia to China in the procurement of rare earth metals,” <https://ubn.news/the-eu-has-shifted-its-focus-from-russia-to-china-in-the-procurement-of-rare-earth-metals/> (검색일: 2025.5.17.)

7) REE+는 주기율표에 있는 17개의 화학 원소들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15개의 란타넘족 원소와 스칸듐 및 이트륨을 포함한다. “International trade in critical raw material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International_trade_in_critical_raw_materials (검색일: 2025.5.17.)

운송되었다. 석유는 주로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운송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던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운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거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석유의 경우 일부 제약은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드루즈바 송유관의 북부 지선은 물량이 줄긴 했지만,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독일과 폴란드로 수송하고 있고 남부 지선은 제8차 EU 제재 패키지에서 허용된 예외 조항 덕분에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에 공급하고 있다.⁸⁾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와 같은 철도 네트워크는 유럽과 아시아 간 상품 및 원자재 운송 시간을 해상 운송에 비해 절반으로 단축하여 무역을 크게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 화물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며 전쟁 이전인 2021년에 중국과 EU 간 철도 화물 운송량이 60만 TEU를 넘었으며, 이 무역의 총 가치는 약 400억 달러에 달했다.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했지만, 러시아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EU 국내 산업과의 이해관계와 공급망 안정성 등으로 인해 EU 제재의 선택성에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EU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핵심광물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주요 공급국과 대체 운송 루트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는 EU가 협력할 수 있는 대안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2. EU의 대중양아시아 전략 개관

E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지역)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1990년대 이후 EU의 중앙아시아 개입은 초기 내부 경제 개혁 지원에서 점차 발전하여 이 지역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본격적인 협력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대테러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8) "The end of the war in Ukraine and the future of the EU-Russia energy relation," <https://www.realinstitutoelcano.org/en/analyses/the-end-of-the-war-in-ukraine-and-the-future-of-the-cu-russia-energy-relation/> (검색일: 2025.5.18.)

9) "The Truth About Eurasian Rail Freight Transport," <https://thediplomat.com/2023/09/the-truth-about-urasian-rail-freight-transport/> (검색일: 2025.5.18.)

2003년 채택된 EU 안보 전략(EU Security Strategy)에 포함되었으나, 중앙아시아가 유럽 외교 정책에서 더욱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2007년 EU의 중앙아시아 전략이 수립된 이후부터였다.

2007년 6월 21~22일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문서인 ‘EU-중앙아시아: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The EU Strategy for a New Partnership with Central Asia)을 채택했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EU의 안보, 안정, 거버넌스, 에너지 다변화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 전략은 EU와 중앙아시아 간 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존 협력 성과, EU의 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이 전략에 따르면, EU의 중앙아시아 협력의 주요 우선순위는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및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강화, 교육 및 경제 발전 지원,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에너지 및 교통 분야 협력, 환경 정책 및 기후 변화 대응, 공동 안보 위협 대응 및 도전 과제 극복, 문화 간 대화 촉진 등이다. 이에 따라 EU는 중앙아시아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고,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양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 형식을 다양화했다.¹⁰⁾

2019년 7월 17일 유럽이사회는 2007년에 처음 수립된 EU의 중앙아시아 전략을 개정하여 새로운 전략인 ‘EU와 중앙아시아: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기회’(The EU and Central Asia: New Opportunities for a Stronger Partnership)라는 문서를 채택했다. 이 전략은 EU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더 강력하고 배타적이지 않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중앙아시아가 더욱 회복력 있고 번영하며, 상호 긴밀히 연결된 경제·정치 공간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¹⁾

이 전략은 EU의 중앙아시아 참여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협력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안보 협력, 환경 문제 대응을 포함한다. 둘째, 번영을 위한 협력으로 경제

10) M. Shamilov, K. Bukovskis, “Behind the new European Union strategy on Central Asia: some conceptual aspects,” *Халықаралық қатынастар және халықаралық құқық сериясы*, Vol. 95, No. 3 (2021), pp. 50-54.

11) “Council conclusions on the New EU Strategy on Central Asia,” 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council_conclusions_on_central_asia_strategy.pdf (검색일: 2024.12.22.)

다변화 및 민간 부문 발전을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내 무역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연결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 지원으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다.¹²⁾ 이러한 전략을 통해 E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EU의 새로운 중앙아시아 전략에 관한 유럽이사회 결론의 마지막 13항에서 유럽이사회는 중앙아시아가 유럽-아시아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글로벌 노력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노력이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규칙 기반 연결성을 촉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이사회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EU 전략’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적절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결성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사회·재정·환경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며, 상품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³⁾ 따라서 교통·에너지 연결성 강화, 디지털 연결성 및 기후 변화 대응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 EU-중앙아시아 파트너십 발전에서 연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연결성의 중요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EU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한편, 2024년 1월 17일 유럽의회는 2019년 EU의 중앙아시아 전략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¹⁴⁾ 유럽의회 외교위원회(AFET)가 작성한 이 결의안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EU의 중앙아시아 전략을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

12) “Evaluating EU’s Central Asia Strategy: Five-Year Mark and Future Expectations,” <https://astanatimes.com/2024/05/evaluating-eus-central-asia-strategy-five-year-mark-and-future-expectations/> (검색일: 2024.12.24.)

13) “Council conclusions on the New EU Strategy on Central Asia,” 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council_conclusions_on_central_asia_strategy.pdf (검색일: 2024.12.22.)

14)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7 January 2024 on the EU strategy on Central Asia,”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4-0027_EN.html (검색일: 2024.12.24.)

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결의안은 EU가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늘리고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협력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 포괄적인 문서는 EU의 중앙아시아 접근 방식의 핵심 요소로서 지역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EU에 중앙아시아와의 연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며, EU는 지역 협력을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 에너지, 교통 분야에서 연결성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결의안은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안보 분야에서 중앙아시아가 가진 높은 잠재력을 강조하며, 이 지역이 동서(East-West) 연결성을 위한 핵심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지정학적 변화는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경로(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TITR), 즉 ‘중부회랑(Middle Corridor)’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의안은 EU가 이 경로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지역 경제권이 아니라, 러시아 영토를 거치지 않는 아시아-유럽 간 대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경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¹⁵⁾

EU와 중앙아시아 간 협력의 우선순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특히 2007년 및 2019년 EU-중앙아시아 전략과 2024년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EU의 적응을 반영하며, 협력의 초점이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지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안보 협력, 사회·문화적 측면의 관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가 지역 협력 의제에 포함되었다. 특히,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EU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서 정치적 대화보다 에너지, 핵심광물, 운송회랑 등 연결성과 관련된 경제 협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15) “European Parliament Report Calls for Updated Central Asia Strategy,” <https://astanatimes.com/2024/01/european-parliament-report-calls-for-updated-central-asia-strategy/> (검색일: 2024.12.24.)

Ⅲ. EU의 대중양아시아 연결성 의제의 주요 분야별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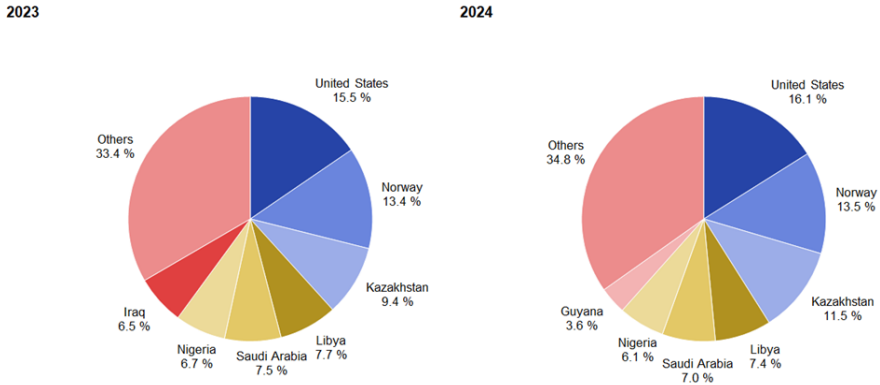
1.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2021년 말까지 러시아는 EU의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국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는 EU 천연가스 수입의 40% 이상, 원유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⁶⁾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여러 차례의 제재 패키지를 도입했으며, 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이후 시기부터 EU의 주요 에너지 제품 수입국 비중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2021년 4분기까지 러시아는 EU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었으며, 점유율은 24.8%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5일 EU는 러시아산 원유(해상 운송)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2023년 2월 5일부터는 정제 석유 제품에 대한 추가 금수 조치를 발효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영향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2024년 기준 3.4%로 2년 연속 EU의 7대 석유 공급국에서 제외되었다. 2024년 EU의 주요 석유 공급국은 미국(16.1%), 노르웨이(13.5%), 카자흐스탄(11.5%)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2024년 점유율은 2023년 대비 2.1%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¹⁷⁾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EU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 전략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6) “Kazakhstan’s Druzhba Prospects: Central Asian Oil to Supply Europe?,” <https://thediplomat.com/2023/04/kazakhstans-druzhba-prospects-central-asian-oil-to-supply-europe/> (검색일: 2025.01.24.)

17) “EU imports of energy products - latest development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oldid=571112&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04.24.)

[그림 1] EU의 파트너별 석유 수입 비중
(단위: %, 거래액 기준 점유율)



자료: Eurostat 데이터베이스(Comext) 및 Eurostat 추정치¹⁸⁾

2021년 4분기까지 러시아는 EU의 최대 석탄 공급국이었으며, 시장 점유율은 47.9%에 달했다. 그러나 EU는 5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산 석탄 및 기타 고형 화석연료의 구매, 수입, 운송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4분기부터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은 0%로 감소하였다.¹⁹⁾

EU는 석유 및 석탄과는 달리 천연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을 대폭 축소했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LNG 수입을 점점 더 늘려왔다.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기체 상태) 수입 비중(금액 기준)은 2021년 44.9%에서 2022년 24.5%, 2023년 16.3%로 크게 감소해 왔다. 2024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EU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며 여전히 노르웨이(45.6%), 알제리(19.3%) 다음으로 큰 공급국이다.²⁰⁾ 반면에 EU의

18) “EU imports of energy products - latest development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oldid=571112&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04.24.)

19) “EU imports of energy products - latest development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oldid=571112&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04.24.)

2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통계청은 석유제품의 생산량 및 수출량과 가스의 수출량(생산량은 공개)에 대한 공식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 언론의 추정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즉, 2022년 이전까지 EU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량은 연간 약 1,500억㎥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이 공급량이 660억㎥로 감소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80억㎥ 및 330억㎥로 줄어들었다.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러시아산 LNG 수입 비중(금액 기준)은 2021년 20.6%에서 2022년 13.45%, 2023년, 11.9%로 감소해 왔으나 2024년에 수입 점유율은 17.5%로 2023년 대비 5.6%p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4년 기준 러시아(17.5%)는 알제리(10.7%), 카타르(10.4%)를 제치고 미국(45.3%)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LNG 공급국이 되었다.²¹⁾ 또한, EU의 러시아산 LNG의 수입 비중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량 증가에 따라 감소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에 따르면,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량은 2021년 1,410만 톤에서 2022년 1,640만 톤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 1,510만 톤으로 주춤하였으나 2024년 유럽 항구에 정박한 러시아산 LNG 운반선의 물량은 1,7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0만 톤 이상 증가했다(그림 2).²²⁾ 가스 분석가인 얀-에릭 펜리히(Jan-Eric Fähnrich)는 이러한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증가 원인은 러시아산 LNG의 환적 금지 조치 제재 발효 이전에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선적하려는 움직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²³⁾ 즉, 2024년 6월 EU 회원국들은 14차 제재 패키지의 일부로 2025년 3월 말부터 러시아산 LNG의 환적을 금지하는 조치에 합의했다.²⁴⁾ 이는 최초의 EU 전역에 구속력 있는 조치로서 러시아 야말(Yamal) LNG의 생산 및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야말 LNG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생산량의 80%를 유럽에 공급했다.²⁵⁾ 현재 EU로 유입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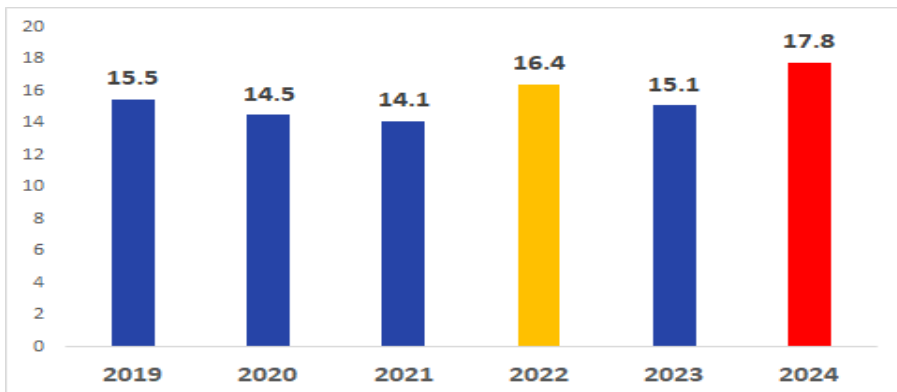
150~200억㎥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Газ в ЕС на максимумах. Кто выигрывает: Газпром или НОВАТЭК,” <https://alfabank.ru/alfa-investor/t/gaz-v-es-na-maksimumah-kto-vyigryvaet-gazprom-ili-novatek/> (검색일: 2025.02.12.)

- 21) “EU imports of energy products - latest development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oldid=571112&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04.24.)
- 22) 러시아 언론의 추정 자료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확인된다. 즉, 2024년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최대 구매자는 유럽 국가들로 약 17.4백만 톤을 차지했다. 이는 2024년 러시아 전체 LNG 수출량의 52%로 2023년 대비 4%p 증가한 수치이다. “Экспорт СПГ из России в 2024 году достиг рекорда,” <https://www.rbc.ru/business/28/01/2025/679785849a794730123774da> (검색일: 2025.02.10.)
- 23) “European imports of liquefied natural gas from Russia at ‘record levels’,”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5/jan/09/european-imports-of-liquefied-natural-gas-from-russia-at-record-levels> (검색일: 2025.01.23.)
- 24) 러시아산 LNG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는 1년 이상 논의되어 왔으나,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등 일부 EU 국가들이 러시아산 LNG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LNG의 전면 수입 금지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택지였다. “EU Bans Resale of Russian LNG, Impacts Remain to be Seen,” <https://www.highnorthnews.com/en/eu-bans-resale-russian-lng-impacts-remain-be-seen> (검색일: 2025.01.23.)
- 25) “European Commission’s Von Der Leyen Suggests EU Could Replace Russian LNG with U.S. Supply,” <https://www.highnorthnews.com/en/european-commissions-von-der-leyen-suggests-eu-could-replace-russian-lng-us-supply> (검색일: 2025.01.23.)

는 러시아산 LNG의 약 20%가 유럽 항구를 거쳐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 이번 환적 금지 조치는 러시아산 LNG가 유럽의 항구를 경유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조치로 러시아가 중국, 인도 같은 먼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능력이 복잡해질 것이지만, 기존에 재수출하던 물량이 그대로 EU에 머물게 되면서 수입이 증가할 위험도 있다.²⁶⁾ LNG 수입과 관련된 현재 추세는 EU가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림 2] EU의 러시아 LNG 수입량

(단위: 백만 톤)

자료: Rystad Energy²⁷⁾

앞서 언급했듯이, 에너지 공급 다변화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석유, 석탄 수입에 대한 EU의 과도한 의존도가 부각되었고 불안정한 공급과 높은 에너지 가격을 경험한 EU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EU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REPowerEU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5월 REPowerEU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6) “EU Imports More Russian LNG in 2024 Than Ever Before, Mostly From Arctic,” <https://www.highnorthnews.com/en/eu-imports-more-russian-lng-2024-ever-mostly-arctic> (검색일: 2025.01.23.)

27) “EU Imports More Russian LNG in 2024 Than Ever Before, Mostly From Arctic,” <https://www.highnorthnews.com/en/eu-imports-more-russian-lng-2024-ever-mostly-arctic> (검색일: 2025.01.23.)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에너지 전략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유럽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PowerEU 계획은 유럽 에너지 시스템이 직면한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완전히 종식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²⁸⁾ REPowerEU 계획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EU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2025년 5월 초 EU 집행위원회는 REPowerEU 계획을 기반으로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핵연료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이후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러시아는 EU의 천연가스 및 LNG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가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급국의 석유와 가스가 필요하며,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EU는 석유 및 가스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또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을 견제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에너지 수출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모스크바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처음에는 이란으로 가스를 수출했고, 이후 중국으로도 공급을 확대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파트너십을 더욱 다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EU도 그중 하나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Trans-Caspian Pipeline, TCP)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 국가이다. TCP 프로젝트는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를 유럽 에너지

28) “How Does the EU’s Energy Strategy Impact Central Asia?,” <https://hagueresearch.org/eu-energy-strategy-centralasia/> (검색일: 2025.01.29.)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CP 프로젝트는 1996년 미국이 처음 제안하였으며, 1999년 이전까지 여러 차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TCP를 실현하려는 마지막 본격적인 시도는 2000년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2021년 여름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 해상 경계 문제를 해결한 이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²⁹⁾ TCP 프로젝트는 바쿠(Baku)와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를 연결하는 약 300km 길이의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가스 회랑(Southern Gas Corridor, SGC)과 연결될 계획이다. TCP가 건설될 경우, 연간 약 320억m³의 천연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카스피해를 건너 유럽으로 수송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³⁰⁾

하지만, TCP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막대한 재정 조달 문제이다. TCP 건설에는 약 50억 달러(약 7조 원)의 투자비용이 예상되며, EU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TCP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둘째, 기존 에너지 인프라와의 통합 문제이다. TCP에서 수송된 가스를 이미 포화 상태인 SGC 인프라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물류적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셋째, 가스 생산량 부족 문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적인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생산 수준이 TCP 공급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³¹⁾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가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유럽으로 추가 수출할 여력이 부족하다.³²⁾ 따라서 TCP 프로젝트는 유럽의 에너지 공급 다변

29) “Turkmenistan Signs its First-Ever Energy Deal with the EU,” <https://www.caspianpolicy.org/research/energy/turkmenistan-signs-its-first-ever-energy-deal-with-the-eu> (검색일: 2025.01.28.)

30) “Turkmenistan, EU Discuss Ties in Energy, Transport,” <https://caspiannews.com/news-detail/turkmenistan-eu-discuss-ties-in-energy-transport-2024-5-16-26/> (검색일: 2025.01.28.)

31) “Trans-Caspian route: From Central Asia to European markets,” <https://www.dailysabah.com/opinion/op-ed/trans-caspian-route-from-central-asia-to-european-markets> (검색일: 2025.01.28.)

32) “Kazakhstan’s Druzhba Prospects: Central Asian Oil to Supply Europe?,” <https://thediplomat.com/2023/04/kazakhstans-druzhba-prospects-central-asian-oil-to-supply-europe/> (검색일: 2025.01.24.)

화 전략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 자금 확보 문제, 가스 운송 능력 문제, 그리고 가스 생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TCP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유럽이 에너지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천연가스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아시아가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카자흐스탄산 원유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 EU 전체 원유 수입량의 11.5%(5,227만 톤)를 차지하는 주요 원유 공급국으로서 EU의 에너지 다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³³⁾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EU로 원유 공급 상황도 녹록지 않다.

러시아의 드루즈바 파이프라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독일 슈베트(Schwedt) 정유시설의 연간 정제 용량은 1,160만 톤이며, 전쟁 이전 러시아는 연간 1억 1,0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유럽으로 공급했다. 2020년 기준, 러시아는 유럽에 1억 3,8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했으며, 특히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달 100~200만 톤을 유럽으로 수출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카자흐스탄이 제공할 수 있는 원유 물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카자흐스탄산 원유의 80% 이상이 기존 러시아 경유 수출 경로인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이를 실행에 옮긴 바 있다.³⁴⁾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석유 산업은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소유 비중이 높아, 정부가 공급량을 조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회사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는 텡기즈 유전의 석유 및 가스 생산 합작회사인 텡기즈셰브르오일(Tengizchevroil) 지분의 20%만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 물량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또한, 카즈무나이가스는 국내 정유시설에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공급해야 하며, 루마니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소유의 정유시설 두 곳에 연간 5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로 인해 유럽으

33) "EU imports of energy products - latest development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oldid=571112&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04.24.)

34) "Russia as a systemic factor," <https://www.clingendael.org/pub/2025/central-asia-emerging-from-the-shadows/5-russia-as-a-systemic-factor/> (검색일: 2025.01.26.)

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 원유량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카자흐스탄이 독일 및 EU 전체의 원유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대체 공급원이 되기는 어렵다. 카자흐스탄 에너지 전문가 올자스 바이딜디노프(Olzhass Baidildinov)는 카자흐스탄이 유럽으로 추가 공급할 여유 원유량이 거의 없으며, 현재로서는 기존 계약을 충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³⁵⁾

2. 핵심광물 확보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 경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지속하기 위해 핵심광물(Critical Raw Material, CRM)³⁶⁾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광물 공급망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수급 불균형에 취약하며, 특히 희토류 및 기타 전략적 원자재(SRM)의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EU는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과 더불어 디지털 및 녹색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망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EU가 수입하는 주요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면,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코발트의 63%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채굴된다. EU의 마그네슘 공급의 97%는 중국에서 수입된다. EU가 사용하는 영구자석용 희토류의 100%는 중국에서 정제된다. EU의 봉산염 공급의 98%는 튀르키예에서 공급된다.³⁷⁾ 이에 따라 EU는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자체 채굴·가공 역량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핵심광물의 소비를 촉진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와 같은 특정 외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명확해졌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광물에 대한 잠재적 의존성에 대한

35) “Kazakhstan’s Druzhba Prospects: Central Asian Oil to Supply Europe?,” <https://thediplomat.com/2023/04/kazakhstans-druzhba-prospects-central-asian-oil-to-supply-europe/> (검색일: 2025.01.24.)

36) EU는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을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 CRM)로 표현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한글로는 핵심광물, 영어로는 CRM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37)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green-deal-industrial-plan/european-critical-raw-materials-act_en (검색일: 2025.01.26.)

논쟁을 촉발했다. EU 지도자들은 이러한 의존성이 위협 요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새로운 핵심광물법(CRMA)을 채택하였으며, 2030년까지 EU 내에서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했다. 즉,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 대비 10%를 EU 내에서 채굴, 40%를 EU 내에서 가공, 25%를 재활용을 통해 핵심광물을 조달하는 것이다. 또한, CRMA는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체 공급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다변화하도록 EU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각 전략적 원자재(SRM) 공급의 65% 이상을 단일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공급망 다각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³⁸⁾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다양한 핵심광물(CRM)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 주요 공급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에서 희토류에 대한 광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은 2012년에 해당 지역의 희소금속 및 희토류 매장지에 대한 목록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매장지는 광물 노두 단계부터 과거에 개발된 광상까지 개발 상태가 다양하다. 2016년에 완료된 이 목록에는 카자흐스탄 160개, 우즈베키스탄 87개, 키르기스스탄 75개, 타지키스탄 60개, 투르크메니스탄 2개를 포함하여 총 384개의 희소금속 및 희토류 매장지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의 데이터에는 위치, 광물 매장지 유형, 지질, 생산, 자원 및 개발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³⁹⁾

EU가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30개 핵심 원자재 중 19개를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일부 핵심광물의 세계 매장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간은 세계 매장량의 38.6%, 크롬 30.07%, 납 20%, 아연 12.6%, 티타늄 8.7%, 알루미늄/보크사이트 5.8%, 구리 5.3%, 코발트 5.3%, 몰리브덴 5.2% 등이다.⁴⁰⁾ 개별

38) "The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Geopolitics and Supply Diversification," <https://www.brunswickgroup.com/media/11569/summary-report-crma-webinar-12-march-2024.pdf> (검색일: 2025.01.31.)

39) "Rare Earth Element Occurrence Database of the Tien Shan Region, Central Asia," <https://catalog.data.gov/dataset/rare-earth-element-occurrence-database-of-the-tien-shan-region-central-asia> (검색일: 2024.6.8.) 변현섭, "핵심광물의 공급망 재편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 개발 정책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40권, 제3호 (2024), p. 174. 재인용

국가별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은 크롬과 아연, 구리, 카드뮴, 보크사이트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은, 몰리브덴, 셀레늄, 카드뮴 및 리튬뿐만 아니라 구리의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아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은, 구리, 납 매장량이 풍부하다.⁴¹⁾

특히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의 지배력에 대항하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스칸듐, 이트륨 및 컴퓨터, 터빈 및 자동차 생산에 중요한 15개의 란타넘족과 같은 금속을 추출하는데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잠재력은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자 하는 EU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EU는 희토류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⁴²⁾

EU는 CRMA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CRM 탐사 및 가공 투자 확대, 순환 경제 촉진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핵심광물의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포럼 및 CRM 클럽과 같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EU의 핵심광물 조달 전략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U는 MSP의 회원국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MSP는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치,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기준 준수 강화, 재활용 확대 및 순환 경제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4월 MSP 포럼이 출범하였으며,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MSP 포럼은 핵심광물 보유국과 수요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EU 집행위가 발표한 CRM 클럽⁴³⁾도 MSP 포럼의 일부로 포함되었다.⁴⁴⁾

40) “Central Asia emerging from the shadows,” <https://www.clingendael.org/sites/default/files/2025-01/central-asia-emerging-from-the-shadows.pdf> (검색일: 2025.01.26.)

41) “The EU strategy on Central Asia: Towards a new momentum?,”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2300/EPRS_BRI\(2024\)762300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2300/EPRS_BRI(2024)762300_EN.pdf) (검색일: 2025.01.26.)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별 핵심광물 현황과 개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바람: 변현섭, “핵심광물의 공급망 재편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 개발 정책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40권, 제3호 (2024), pp. 167-197.

42) “Кри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конкуренции великих держав?,” <https://cabar.asia/ru/critical-raw-materials-central-asia> (검색일: 2025.01.31.)

43) EU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를 위한 핵심광물 클럽(Critical

또한, EU는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2022년 11월 카자흐스탄과 그리고 2024년 4월 우즈베키스탄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핵심광물 및 정제된 소재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과 일맥상통하며, 이는 지속 가능하고 고품질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EU의 핵심 이니셔티브이다. 이 전략은 파트너 국가들의 필요를 고려하고,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EU는 2027년까지 최대 3,000억 유로의 투자를 동원할 계획이다.⁴⁵⁾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EU는 핵심광물의 가공 및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채굴 및 가공 역량을 확대하여 현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EU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EU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브뤼겔(Bruegel)이 2024-2029년 EU 지도부를 위한 메모⁴⁶⁾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EU CRMA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해당 메모에서는 EU 차원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CRMA의 주요 도구가 규제적 조치(예: 인허가 기간 단축, 순환 경제 규칙 강화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ThinkEuropa의 분석가 디테 브라소 쇠렌센(Ditte Brasso Sørensen)도 EU가 CRMA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⁴⁷⁾ EU 내 채굴 및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전에

Raw Materials Club)을 설립하였다.

44) "Implementing the EU's Critical Raw Materials Act,"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6253/EPRS_BRI\(2024\)766253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6253/EPRS_BRI(2024)766253_EN.pdf) (검색일: 2025.01.31.)

45) 현재 EU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국가 및 지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Raw Materials Partnerships)을 체결했다: 캐나다(2021년), 우크라이나(2021년), 나미비아(2022년), 칠레(2023년), 아르헨티나(2023년), 잠비아(2023년), 콩고민주공화국(2023년), 그린란드 자치구(2023년). "EU establishes strategic partnership with Uzbekistan on critical raw material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1806 (검색일: 2025.01.27.)

46) "Memos to the European Union leadership 2024-2029," <https://www.bruegel.org/anthology/memos-european-union-leadership-2024-2029> (검색일: 2025.01.31.)

직면해 있다. 채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낮고, 높은 에너지 비용과 노동 비용이 원자재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연구 및 탐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EU의 광물 매장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CRMA가 추진하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조치가 전략적 원자재(SRM) 프로젝트의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준비 기간에서 인허가 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EU 내 핵심광물 가공 및 재활용 활동을 확대하려는 CRMA의 목표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⁴⁸⁾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앙아시아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기업들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핵심광물 채굴 라이선스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 지역에서 중국이 사실상 채굴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앙아시아 핵심광물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풍력 터빈 생산에 사용되는 몰리브덴의 카자흐스탄산 대(對)중국 수출량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4배로 증가했다. 카자흐스탄은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크롬 공급국이 되었다.⁴⁹⁾ 따라서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EU 및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새로운 핵심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는 점은 EU의 핵심광물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자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노후화된 광산 인프라, 외국 기업들의 채굴 활동으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 제한된 투명성, 취약한 거버넌스 및 부패 등이 언급된다.⁵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아시아

47) “The EU’s Critical Raw Materials Strategy: Engaging with the World to Achieve Self-Sufficiency,” <https://think.europa.dk/brief/2024-09-the-eus-critical-raw-materials-strategy-engaging-with-the-world-to-achieve-self> (검색일: 2025.01.31.)

48) “Implementing the EU’s Critical Raw Materials Act,”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6253/EPRS_BRI\(2024\)766253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6253/EPRS_BRI(2024)766253_EN.pdf) (검색일: 2025.01.31.)

49) “Central Asia could help the West break its dependence on China’s critical minerals,” <https://thehill.com/opinion/4434965-central-asia-could-help-the-west-break-its-dependence-on-chinas-critical-minerals/> (검색일: 2025.02.01.)

50) “How Central Asia can help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https://partner.sciencenorway.no/batteries->

가 핵심광물 공급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3. 물류 및 교통망 연결 강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EU와 중앙아시아 간의 교통망 연결은 더욱 필수적인 대안 경로가 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기존 북부회랑(Northern Corridor)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과 홍해에서 후티(Houthi) 반군의 공격으로 해상 무역이 불안정해진 점을 감안할 때, 중앙아시아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무역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중앙아시아가 글로벌 교통·물류 허브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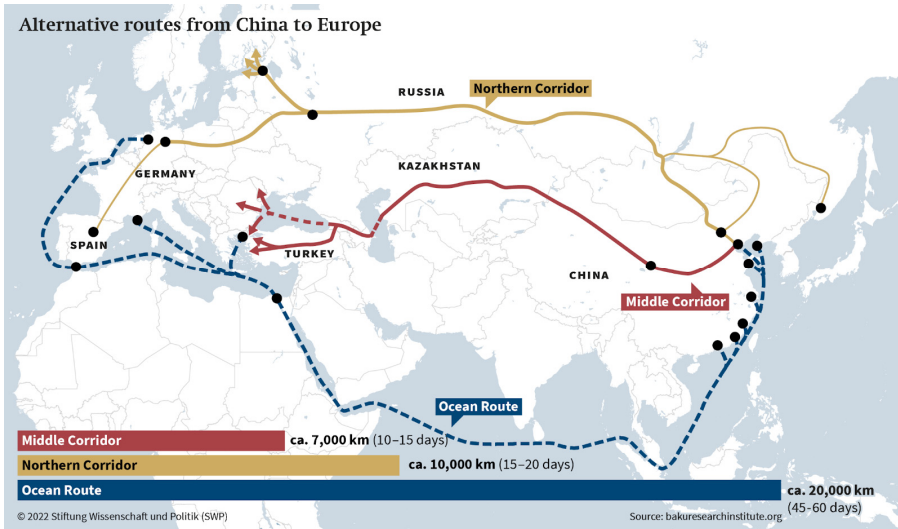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프로젝트는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경로’(TITR), 일명 ‘중부회랑’으로, 이 경로는 중국 시장을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유럽과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다. 이 경로는 철도(약 4,250km)와 내륙 수로(약 500km)를 포함하는 다중(multimodal) 육·해상 운송 회랑이다. 이 회랑은 조지아의 바투미(Batumi)와 포티(Poti) 항구에서 시작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카자흐스탄의 악타우,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까지 철도 및 해상 운송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중부회랑은 북부회랑(Northern Corridor)의 5,400km 철도 운송보다 더 짧은 거리로 운송이 가능하다.⁵²⁾

nupi-renewable-energy/how-central-asia-can-help-the-global-energy-transition/2000234 (검색일: 2025.02.01.)

51) “Forging Sustainable Transport Connectivity: Enhancing EU-Central Asia Transportation Through the Trans-Caspian Corridor,” <https://eias.org/policy-briefs/forging-sustainable-transport-connectivity-enhancing-eu-central-asia-transportation-through-the-trans-caspian-corridor/> (검색일: 2025.02.05.)

52) “The Future of the Middle Corridor,” <https://ra.ac.ae/en/research/publications/the-future-of-the-middle-corridor> (검색일: 2025.02.05.)

[그림 3] 중부회랑 노선도



자료: The Future of the Middle Corridor⁵³⁾

유라시아 연결성의 개선은 EU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남캅카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동시에, 러시아, 중국,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U는 중앙아시아로 가는 보다 직선적이고 효율적인 상업 경로로 중부회랑을 주목하고 있으며, 기존 북부회랑에 비해 거리가 짧아 운송비용과 물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⁵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부회랑은 기존 북부회랑을 대체할 가장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경로로 부상했다. 전쟁 이전까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또는 북부회랑은 중국과 유럽 간 무역의 86%를 차지하는 주요 운송 경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북부회랑을 통한 물류 운송이 불확실해졌고, 이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53) “The Future of the Middle Corridor,” <https://ra.ac.ae/en/research/publications/the-future-of-the-middle-corridor> (검색일: 2025.02.05.)

54) “Forging Sustainable Transport Connectivity: Enhancing EU-Central Asia Transportation Through the Trans-Caspian Corridor,” <https://eias.org/policy-briefs/forging-sustainable-transport-connectivity-enhancing-eu-central-asia-transportation-through-the-trans-caspian-corridor/> (검색일: 2025.02.05.)

국가 및 기업들은 대체 무역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경로를 통한 화물 운송량은 2022년 150만 톤에서 2023년 280만 톤으로 87%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간 1,100만 톤 이상의 물류 수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회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⁵⁵⁾ 비록 중부회랑이 가장 저렴한 운송 경로는 아닐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되고 있는 오늘날 이 경로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내 지속 가능한 교통 연결성 개발을 위해 총 1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1월 29~30일 브뤼셀에서 처음 개최된 ‘EU-중앙아시아 운송 연결성을 위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자 포럼’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15일 이내에 연결하는 TITR 신속 경로의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이 포럼에는 유럽 기관, EU 회원국,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국가,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G7 국가 및 국제 금융 기관의 고위 대표들이 참석했다.⁵⁶⁾

그러나 중부회랑 활성화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먼저, 역내 통합이 부족하다. 중부회랑 국가들 간에 관세 동맹, 공동 요금 조정, 초국가적 디지털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기반 시설의 한계가 있다. 현재 러시아를 경유하는 기존 경로인 북부회랑에 비해 중부회랑의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의 철도 인프라는 대륙 간 철도 무역의 약 5%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해상 운송의 복잡성 문제가 있다. 중부회랑은 카스피해와 흑해를 횡단해야 하는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화물을 해상 환적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운송비용 증가 및 배송 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⁵⁷⁾ 실제로 항구의 저조한 운영 능력, 낙후된 철도 인프라,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조건 등으로 인해 운송 시간이 14일에서 45일까지, 심지어 최대 6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연간 처리 용량이 580만 톤으로 북부회랑의 수송 능력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55) “The Future of the Middle Corridor,” <https://ra.ac.ae/en/research/publications/the-future-of-the-middle-corridor> (검색일: 2025.02.05.)

56) “Forging Sustainable Transport Connectivity: Enhancing EU-Central Asia Transportation Through the Trans-Caspian Corridor,” <https://eias.org/policy-briefs/forging-sustainable-transport-connectivity-enhancing-eu-central-asia-transportation-through-the-trans-caspian-corridor/> (검색일: 2025.02.05.)

57) “The Middle Corridor: Promising alternative for export and energy,” <https://www.dailysabah.com/opinion/op-ed/the-middle-corridor-promising-alternative-for-export-and-energy> (2025.01.30.)

2022년 이전까지 중부회랑의 활용도와 매력은 제한적이었다.⁵⁸⁾

2023년 6월 발표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회랑의 운영 효율성과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3개의 하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7개의 소프트 연결성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보고서는 우선순위 기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185억 유로를 추산하며,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네트워크 전반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⁵⁹⁾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각기 다른 교통 회랑 경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중부회랑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다. 일부 국가는 동서(East-West) 연결을 우선시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남북(South-North) 경로를 더 선호한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경로(TITR) 실현에 정치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2022년 11월 카자흐스탄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와 함께 우선 투자 항목을 포함한 TITR 개발 로드맵에 서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로 도약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또한 TITR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참여 수준은 비교적 낮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TITR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기회가 적다고 보고 있으며, 남북 경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 국가는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아프간 횡단 철도 및 이란을 통해 개방된 해상 항로에 접근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남아시아 및 중동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모스크바가 선호하는 교통망으로 평가되고 있다.⁶⁰⁾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이상 지난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간의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에 따라

58) “The EU strategy on Central Asia: Towards a new momentum?,”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2300/EPRS_BRI\(2024\)762300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2300/EPRS_BRI(2024)762300_EN.pdf) (검색일: 2025.01.26.)

59) “The EU strategy on Central Asia: Towards a new momentum?,”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2300/EPRS_BRI\(2024\)762300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2300/EPRS_BRI(2024)762300_EN.pdf) (검색일: 2025.01.26.) EBRD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바람: “Sustainable transport connections between Europe and Central Asia,” <https://www.ebrd.com/news/publications/special-reports/sustainable-transport-connections-between-europe-and-central-asia.html> (검색일: 2025.01.26.)

60) “Central Asia emerging from the shadows,” <https://www.clingendael.org/sites/default/files/2025-01/central-asia-emerging-from-the-shadows.pdf> (검색일: 2025.01.26.)

중부회랑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평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될 경우 실크로드를 따라 위치한 유라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북부회랑을 대체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곧 러시아의 지배력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중부회랑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운송 수익 감소, 협상력 약화,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 축소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과 유럽이 중부회랑의 운송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⁶¹⁾는 주장도 있다.

IV. 결 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EU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도 러시아, 중국 이외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EU의 역할 확대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EU와 중앙아시아는 각자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EU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EU가 유라시아 강국 및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는 정치·경제적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대중중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며, 특히 연결성 의제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U와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정학적, 전략적 차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에너지, 핵심광물, 물류 및 교통망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중중앙아시아 전략을 재편성

61) "The Future of the Middle Corridor," <https://ra.ac.ae/en/research/publications/the-future-of-the-middle-corridor> (검색일: 2025.02.05.)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EU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TCP) 프로젝트와 같은 대체 경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 기존 인프라와의 통합, 가스 생산량 부족 등의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이 여전히 러시아의 파이프라인(CPC)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의 완전한 독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핵심광물 확보는 EU의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중앙아시아는 희토류 및 다양한 전략적 원자재(SRM)를 보유한 지역으로 EU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채굴 라이선스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EU의 광물 확보 전략에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물류 및 교통망 연결 강화는 EU가 추진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중부회랑은 기존 북부회랑을 대체할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으며, EU는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 간의 운송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철도 및 항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 간 조율 부족, 높은 물류 비용, 복잡한 해상 운송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반적으로 EU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 EU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과정은 균일하지 않고 복잡하다. 에너지, 핵심 광물, 물류 전반에 걸쳐 남아 있는 취약점은 지정학적 경쟁이 계속됨에 따라 EU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을 넘어 기술 주권, 인프라 통제, 그리고 국내 산업 역량 강화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요구한다. 중앙아시아는 EU의 에너지 안보 및 무역 다변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지정학적, 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EU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EU가 추진할 핵심 과제는 중앙아시아를, 러시아를 대체하는 가치 있는 광물 자원의 공급지와 러시아를 우회하는 운송로만 바라보는 전통적 협력의 시각에서 벗어나, EU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전략에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향후 E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실질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EU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세계 경제 통합과 정치경제 개혁 지원을 병행하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투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 상황과 중앙아시아의 보완적 요인.” 『동유럽발칸연구』, 제48권, 제1호. 2024.
- 변현섭. “핵심광물의 공급망 재편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중앙아시아의 핵심광물 개발 정책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40권, 제3호. 2024.
- 조영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의 대외 에너지 협력에 미친 영향.” 『슬라브학보』, 제39권, 제2호. 2024.
- 윤성욱. “유럽연합 대외정책의 제약과 한계: 대 중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1호. 2015.
- 이지은. “카자흐스탄의 對 EU 정책: 전방위외교와 추진 동력.” 『슬라브研究』, 제39권, 제3호. 2023.
- Shamilov, M., Bukovskis, K. “Behind the new European Union strategy on Central Asia: some conceptual aspects.” *Халықаралық қатынастар және халықаралық құқық сериясы*. Vol. 95, No. 3 (2021).
- “Central Asia could help the West break its dependence on China’s critical minerals.” <https://thehill.com/opinion/4434965-central-asia-could-help-the-west-break-its-dependence-on-chinas-critical-minerals/> (검색일: 2025. 02.01.)
- “Central Asia emerging from the shadows.” <https://www.clingendael.org/sites/default/files/2025-01/central-asia-emerging-from-the-shadows.pdf> (검색일: 2025.01.26.)
- “Council conclusions on the New EU Strategy on Central Asia.” 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council_conclusions_on_central_asia_strategy.pdf (검색일: 2024.12.22.)
- “EU Bans Resale of Russian LNG, Impacts Remain to be Seen.” <https://www.highnorthnews.com/en/eu-bans-resale-russian-lng-impacts-remain-be-seen> (검색일: 2025.01.23.)
- “EU establishes strategic partnership with Uzbekistan on critical raw material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1806 (검색일: 2025.01.27.)

- “EU Imports More Russian LNG in 2024 Than Ever Before, Mostly From Arctic.” <https://www.highnorthnews.com/en/eu-imports-more-russian-lng-2024-ever-mostly-arctic> (검색일: 2025.01.23.)
- “EU imports of energy products - latest development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oldid=571112&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04.24.)
- “European Commission’s Von Der Leyen Suggests EU Could Replace Russian LNG with U.S. Supply.” <https://www.highnorthnews.com/en/european-commissions-von-der-leyen-suggests-eu-could-replace-russian-lng-us-supply> (검색일: 2025.01.23.)
- “European imports of liquefied natural gas from Russia at ‘record levels.’”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5/jan/09/european-imports-of-liquefied-natural-gas-from-russia-at-record-levels> (검색일: 2025.01.23.)
- “European Parliament Report Calls for Updated Central Asia Strategy.” <https://astanatimes.com/2024/01/european-parliament-report-calls-for-updated-central-asia-strategy/> (검색일: 2024.12.24.)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7 January 2024 on the EU strategy on Central Asia.”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4-0027_EN.html (검색일: 2024.12.24.)
- “EU-Russia trade plummets to historic low.” <https://www.aa.com.tr/en/europe/eu-russia-trade-plummets-to-historic-low/3406224> (검색일: 2025.5.17.)
- “Evaluating EU’s Central Asia Strategy: Five-Year Mark and Future Expectations.” <https://astanatimes.com/2024/05/evaluating-eus-central-asia-strategy-five-year-mark-and-future-expectations/> (검색일: 2024.12.24.)
- “Forging Sustainable Transport Connectivity: Enhancing EU-Central Asia Transportation Through the Trans-Caspian Corridor.” <https://eias.org/policy-briefs/forging-sustainable-transport-connectivity-enhancing-eu-central-asia-transportation-through-the-trans-caspian-corridor/> (검색일: 2025.02.05.)
- “How Central Asia can help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https://partner>.

- sciencenorway.no/batteries-nupi-renewable-energy/how-central-asia-can-help-the-global-energy-transition/2000234 (검색일: 2025.02.01.)
- “How Does the EU’s Energy Strategy Impact Central Asia?.” <https://hagueresearch.org/eu-energy-strategy-centralasia/> (검색일: 2025.01.29.)
- “Implementing the EU’s Critical Raw Materials Act.”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6253/EPRS_BRI\(2024\)766253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6253/EPRS_BRI(2024)766253_EN.pdf) (검색일: 2025.01.31.)
- “International trade in critical raw material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International_trade_in_critical_raw_materials (검색일: 2025.5.17.)
- “Joint Roadmap for Deepening Ties between the EU and Central Asia.”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4587-2023-INIT/en/pdf> (검색일: 2025.01.26.)
- “Kazakhstan’s Druzhba Prospects: Central Asian Oil to Supply Europe?.” <https://thediplomat.com/2023/04/kazakhstans-druzhba-prospects-central-asian-oil-to-supply-europe/> (검색일: 2025.01.24.)
- “Memos to the European Union leadership 2024-2029.” <https://www.bruegel.org/anthology/memos-european-union-leadership-2024-2029> (검색일: 2025.01.31.)
- “Rare Earth Element Occurrence Database of the Tien Shan Region, Central Asia.” <https://catalog.data.gov/dataset/rare-earth-element-occurrence-database-of-the-tien-shan-region-central-asia> (검색일: 2024.6.8.)
- “Russia as a systemic factor.” <https://www.clingendael.org/pub/2025/central-asia-emerging-from-the-shadows/5-russia-as-a-systemic-factor/> (검색일: 2025.01.26.)
- “Sustainable transport connections between Europe and Central Asia.” <https://www.ebrd.com/news/publications/special-reports/sustainable-transport-connections-between-europe-and-central-asia.html> (검색일: 2025.01.26.)
- “The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Geopolitics and Supply Diversification.” <https://www.brunswickgroup.com/media/11569/summary-report-crma-webinar-12-march-2024.pdf> (검색일: 2025.01.31.)
- “The end of the war in Ukraine and the future of the EU-Russia energy relation.”

<https://www.realinstitutoelcano.org/en/analyses/the-end-of-the-war-in-ukraine-and-the-future-of-the-eu-russia-energy-relation/> (검색일: 2025. 5.18.)

“The EU has shifted its focus from Russia to China in the procurement of rare earth metals.” <https://ubn.news/the-eu-has-shifted-its-focus-from-russia-to-china-in-the-procurement-of-rare-earth-metals/> (검색일: 2025. 5.17.)

“The EU’s Critical Raw Materials Strategy: Engaging with the World to Achieve Self-Sufficiency.” <https://thinkeuropa.dk/brief/2024-09-the-eus-critical-raw-materials-strategy-engaging-with-the-world-to-achieve-self> (검색일: 2025.01.31.)

“The EU strategy on Central Asia: Towards a new momentum?.”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2300/EPRS_BRI\(2024\)762300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4/762300/EPRS_BRI(2024)762300_EN.pdf) (검색일: 2025.01.26.)

“The Future of the Middle Corridor.” <https://ra.ac.ae/en/research/publications/the-future-of-the-middle-corridor> (검색일: 2025.02.05.)

“The Middle Corridor: Promising alternative for export and energy.” <https://www.dailysabah.com/opinion/op-ed/the-middle-corridor-promising-alternative-for-export-and-energy> (검색일: 2025.01.30.)

“The Truth About Eurasian Rail Freight Transport.” <https://thediplomat.com/2023/09/the-truth-about-eurasian-rail-freight-transport/> (검색일: 2025. 5.18.)

“Trans-Caspian route: From Central Asia to European markets.” <https://www.dailysabah.com/opinion/op-ed/trans-caspian-route-from-central-asia-to-european-markets> (검색일: 2025.01.28.)

“Turkmenistan, EU Discuss Ties in Energy, Transport.” <https://caspiannews.com/news-detail/turkmenistan-eu-discuss-ties-in-energy-transport-2024-5-16-26/> (검색일: 2025.01.28.)

“Turkmenistan Signs its First-Ever Energy Deal with the EU.” <https://www.caspianpolicy.org/research/energy/turkmenistan-signs-its-first-ever-energy-deal-with-the-eu> (검색일: 2025.01.28.)

“Газ в ЕС на максимумах. Кто выигрывает: Газпром или НОВАТЭК.”

<https://alfabank.ru/alfa-investor/t/gaz-v-es-na-maksimumah-kto-vyigryvaet-gazprom-ili-novatek/> (검색일: 2025.02.12.)

“Кри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конкуренции великих держав?” <https://cabar.asia/ru/critical-raw-materials-central-asia> (검색일: 2025.01.31.)

“Экспорт СПГ из России в 2024 году достиг рекорда.” <https://www.rbc.ru/business/28/01/2025/679785849a794730123774da> (검색일: 2025.02.10.)

Abstract

EU's Risk Aversion Strategy Regarding Economic Dependence on Russia

- Focusing on Connectivity Strategies with Central Asia -

Hyunsub, BYUN · Youngmin YOON

This study analyzes the European Union's (EU) strategy toward Central Asia as a risk-hedging measure against economic dependence on Russia in the aftermath of the Russia-Ukraine war, with a particular focus on assessing the main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its connectivity agenda. Recent geopolitical shifts have ushered in a new phase in EU-Central Asia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prompting the EU to seek alternative logistics and energy routes to reduce its economic dependence on Russia.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U's policy toward Central Asia is being implemented across three key areas: diversification of energy supply chains, securing critical raw materials, and strengthening logistics and transport connectivity.

Furthermore,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of the EU's strategy toward Central Asia in reducing Russia's influence and strengthening its economic presence in the Eurasian region, while also addressing the practic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it faces. Moving forward, the EU must establish more effective and pragmatic cooperation models, align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and enhanc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to ensure sustainable collaboration.

변현섭 — russianbhs@kmu.ac.kr

/ 관심분야: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경제

윤영민 — yoonym81@gmail.com

/ 관심분야: 러시아 에너지 안보 및 정책